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37호

발행일 : 2019. 5.1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한화영 학생

**교회에 전통처럼  
자리잡은 성전밧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성전으로  
향했고, 학원이 끝나도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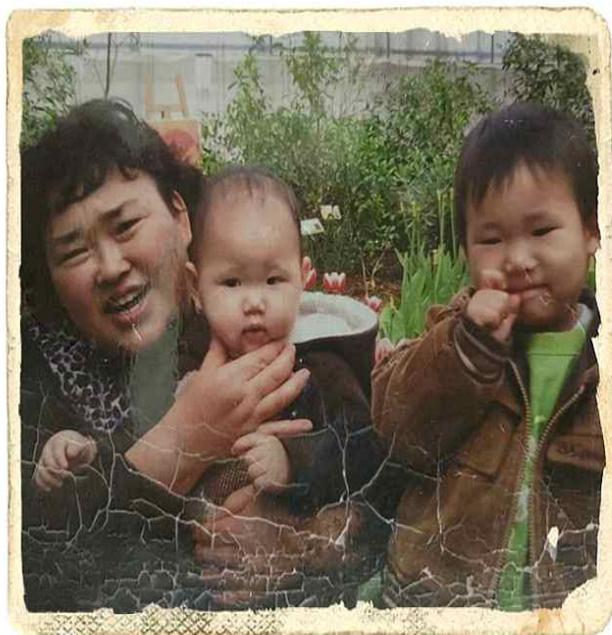
-한화영 학생-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학생회 한화영입니다. 부족한 제게 이런 소중한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살때부터 엄마를 따라 우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일 만큼 크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저이기에 무슨 내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지 무척 고민되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최근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한번 감사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네일아티스트가 꿈입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샵에 가실 때 따라갔었는데 네일아트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좋아보였었습니다. 작은 손톱에 새겨지는 너무나 예쁜 그림들~ 그것은 어릴 적 내게 새로운 감동이며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취미가 되었고 그 취미는 장래 꿈이 되었습니다. 평소 어떤 일들에 쉽게 싫증을 내곤 했었기 때문에 이 일도 금방 싫증이 날줄 알았는데 이것은 싫증도 나지 않고 오히려 생각만해도 기분 좋은 딱 내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어도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나의 하나님은 내게 딱 맞는 꿈을 주셨습니다. "나랑 정말 잘 맞고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생각이 든 것이 중학교 때였으니 다른 누군가에 비하면 정말 일찍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미용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어서 친구랑 미용학원에 상담을 갔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해 낸 것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받아주는 일자리도 없었기에 잠잠히 기다리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최대한 빨리 학원에 가서 네일아트를 배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 벌었고 부모님께 손 내밀지 않고 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가르쳐주시는 강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더욱 재밌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술직이 그렇지만 미용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와 실기 두 가지 시험을 나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필기를 준비할 당시 교회에서는 학생회 헌신예배 준비가 한창이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헌신예배 준비에 게으를 수도 없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했기에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험 준비와 헌신예배 준비를 모두 같이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시험을 치른 다른 분들은 대부분 붙어서 기뻐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애써 팬츠는 척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도 예외없이 헌신예배 준비를 위하여 교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아! 공부 좀 더 할 걸....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걸....'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 몹시 짜증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미 붙으신 분들은 엄청 흥분되어서 나라를 얻은 듯이 본인들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였을때도 아무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들께서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미친듯이 외우고 외워서 100점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두 번째 시험은 붙었습니다. 다음은 실기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선배 언니 오빠들을 보니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누구든 성전밧기 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교회에 전통처럼 자리잡은 성전밧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성전으로 향했고 학원이 끝나도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며 시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기뻐 받으셨는지 실기시험을 단번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꿈꿔왔던 자격증을 드디어 취득했습니다. 이 간증을 읽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저처럼 감격이지요? 역시 하나님은 내편이십니다!! 지금은 '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피부미용도 배우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더 크게 제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언니 오빠들의 청년기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던 신앙이 희미해지고 예배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의 생활 정착지가 당진이 아니고 타 지역이 되면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1. 양반집 규수로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있으셨습니다. 또 옛날을 사신 분들이 대다수 그렇듯 아버지에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었기에 항상 여자는 남자가 섬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여자는 조신하게 앉 전히 앉아서 찹찹거리거나 남남 하는 소리 없이 먹어야 했구요. 찌개를 먹어도 후루룩 하는 소리가 나서는 안됐습니다. 물을 마셔도 최대한 꿀꺽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했었다니까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때였을 겁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는 중 제가 방귀를 낀 적이 있었습니다. 참다 참다 참지 못한 건데 아버지께 엄청 크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매도 맞았지요. 그리고 방귀가 나오면 발뒤꿈치로 향문을 누르고 엉덩이에 힘을 주며 참아야 한다며 훈계 하셨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2. 친정어머니께서 집사님 결혼하시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엇이 힘들었나요?

어머니께서는 36살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감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 감나무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3년을 앓으시다 39살에 돌아가셨지요. 3남 4녀 중 저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래로 5명의 동생들을 언니와 함께 돌보아야 했습니다. 둘째 남동생이 잘못 없이 학교 선생님께 매를 심하게 맞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엉덩이가 곪아 터지고 그 자리에 파리가 앉아 새끼를 까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어머니가 없으니 남들한테 무시당해 생긴 일 같아 더욱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짧지 않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들이랑 살 때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어머니 없이 살다가 21살 어린 나이에 중호 아빠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구요.

그때 남편은 세상 의지할 곳 없었던 저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낳고 부러울 것 없이 사랑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인을 내 자리에 앉히며 나보고 양보하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이보다 더 큰 지옥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고 정신을 잃고 싶어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방황하고 있을 때 아들 종호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아들 입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통해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짧지 않았던 방황에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아이들만 존재하는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4. 사는 것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기뻐던 때는 언제였나요?

아들 종호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지금의 영민이 엄마요~ 알고 보니 이미 임신중이었구요.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이 일을 어찌해야하나 근심했구요.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 내가 두 아들을 얻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 손주 영민이 덕분에 삶에 활력도 생겼고 아기 재롱을 보며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영찬이와 은하 이렇게 3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지요~ 이 아이들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해주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이쁜 아이들이랍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 5. 언제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으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신 때는 언제인지요?

9살 어린 시절 3리길도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궁금해서 언니와 한번 가 본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꾸중만 듣고 말았습니다.

엄하셨던 아버지는 때까지 들어 치시며 이미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절에 올려 기도중이니 교회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중퇴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건 송산에서 영광순복음 교회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 6. 우리교회에 오신 이유와 계기는요?

영광교회 성도와 약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목사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서운하게도 목사님께서 이미 성기는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오지 못하고 다른 여러 교회를 둘러보며 방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신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조영희 권사님께서 교회 창립 기념일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할 수 있었구요. 이때를 계기로 성도로 정착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저는 이미 전에 받았던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자와 같이 성도와 권찰의 시기를 지나 집사의 직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 7. 이재동 집사님 자랑 실컷 해 보세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딸 많은 집안에 외아들이었으니 알만 하지요? 그런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하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충만하며 무엇보다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모습이 강하구요. 아내인 저를 이제 많이 챙겨줍니다. 같이 다닌 여행이 별로 없는데 이제 저와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겠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약도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 줍니다. 거기다 요즘엔 전에 없던 스킨십? 도 자주 해 줍니다.

완전 신혼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 8. 최근 계부와 공모하여 친딸을 살해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의 심정은 어떠신지요?

말세입니다. 사형제도가 부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오장육부를 다 내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일진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친모가 사악한 사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세 지말에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 9.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과연 믿음을 찾아 볼 수 있을지 염려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집사님께서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내 삶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불쌍한 자를 보면 성경말씀을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내 집에 방문한 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구요~ 내게 잘못하고 떠나간 친구에게 오히려 베풀며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자 애씁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다 뺏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아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10. 만드시는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특히 고추장 된장이 일품인데 머느리도 모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냥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어깨 넘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먹으면 맛있다네요~~ 남편도 맛있다고 칭찬해 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음식으로 더 많이 섬기며 살겠습니다.

### 11. 점심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메뉴와 맛을 자랑 해 주세요~

일본식 라면, 김치 볶음밥, 하이라이스, 돈가스, 육회 비빔밥, 맛살튀김, 새우튀김 등 메뉴가 많아요. 직접 농사지은 재료들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이구요~ 한우도 1등급만 사용하여 최고의 정성을 들여 만들어 냅니다. 다들 맛있다고 칭찬일색인데 한 가지 부족한건 예쁘게 모양을 좀 내고 싶은데.... 손님들이 눈으로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은 없네요~

### 12.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하셨지요? 그때마다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처음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엄청 챔피언했구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많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또한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 있는 증거이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건 너무 무섭습니다.

### 13. 항상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몸을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사는 동안 부지런한건 당연한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뭐든 열심히 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며 일하는게 몸에 배었습니다. 마음은 쉬고 싶은데 몸은 이미 일터로 나가 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따라주질 않아 이전에 건강 했을 때처럼은 일하지 못합니다. 힘이 따라 주질 않아요~~~~

### 14.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행복의 비결을 말씀 해 주세요~

전에는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깨지는 건 당연했구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많은 부분 내려받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부분은 남편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로 많이 이해해 주고 챙겨주고 사랑해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주님 안에서 많이들 착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화 낼 일이 줄었고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 15. 집사님은 60평생을 사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설게 해 보세요.

지금 이대호가 너무 좋습니다. 이 평안을 잘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물론이구요~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거구요. 논일 밭일 좀 줄이고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특히 성지순례는 같이 꼭 가 볼 예정이에요. 또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중보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 <새 가족 소개>

### 조명금 성도

합덕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까지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좋은 감정으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합덕에서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이자 지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슬하에 딸만 하나 두고 있고요.



신혼살림은 다시 당진으로 내려와 순성 세안아파트에서 차렸는데요~ 김경숙 성도님과 위 아래층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순성덕이 참 많은데 한분 추가요~~ 순성에서 몇년 살다 당진으로 나와 살 때 또 김경숙 성도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어 인연은 계속 되었는데요.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 아주 편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김경숙 성도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의 모습이 날로 변하는걸 보았답니다. 예전엔 찾아 볼 수 없었던 신앙적인 모습들을 친구를 통해 자주 발견하면서 교회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있던 조명금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 무렵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암 진단으로 투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경숙 성도님으로부터 이종희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더욱 우리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셨습니다. 가족이 힘이 되어 주고 위로해 주고 있지만 모든 것은 결국 혼자만의 싸움이란 생각에 몹시도 괴롭워 눈물 흘리던 성도님께서서는 소망으로 만나주신 주님께 참 많이 감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함께 증보해 주셔야 할 새로운 가족입니다. 또한 김경숙 성도님의 변화되는 모습이 복음이 되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술로뿐 아니라 행함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편지>

이신애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김다희예요.

올해 교회에서 담임선생님 발표가 났을 때

선생님께서 5학년 담임이셔서 저는 너무 신나고 기쁘고 설레었어요.

맨 처음 공과공부를 하고 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돌봐 주시는데

5학년들이 선생님 마음도 몰라주고 말씀도 잘 듣지 않고

힘들게 한 적이 많아서 속상하셨지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썽꾸러기인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예뻐 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앞으로는 성경도 많이 읽고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다희가 될게요.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다희가 될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꼭 건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지>

임마누엘 학생회 백장미입니다.

세상에는 학교와 학원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우리를 위해 가르치고 헌신하고 계시지만  
다분히 기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하였습니다.

지치고 억눌린 마음까지 그분들이 위로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내가 만난 교회 선생님들은 세상의 학문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회에 마지막인 고 3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유초등부를 졸업하고 학생회에 올라왔을 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였  
지만 사모님과 구옥순 선생님의 인내와 사랑과 헌신으로 과분하리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학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웃었고 또 선생님들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만큼 성장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시고 가르쳐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것 많은 연약함 투성이 이지만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주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  
며 선생님들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라 함께 학생의 때를 보내시고 이제 청년이 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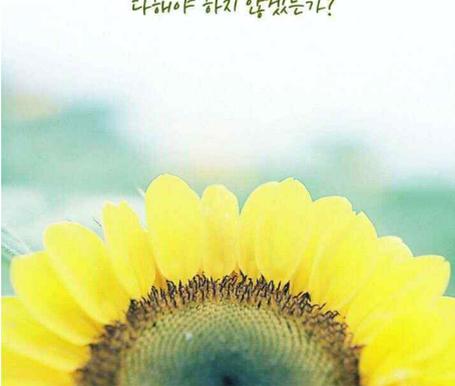
김연훈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서 차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와 같은 감성과  
생각으로 다가오셔서 다듬어주시고 풀어주시며 더욱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연훈 선생님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에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열심과 열정을 배우고 익혀 연훈 선생님처럼 본이 되는  
 신앙을 살며 후배들에게 몸으로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보다 더욱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 흘려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가정에 대해서 기록된 건  
 성경에 한 마디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까지 알해 온 것이다.  
 그렇게 못할망정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 가로 세로 퍼즐**

<정답>

시	납			니	느	웨				
	달				보					므
모	리	아	산		산		나	사	로	
압							하		닥	
						기	스		발	
			글	레	멘	드			라	
호	렙	산		갑		온		에	단	
산								글		
나	아	만				헤	브	론		
							나			

<편지>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예원입니다.

글 솜씨가 뻘어나지 않아 제 마음을 다 표현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작게나마 용기 내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쁘게 봐 주시고 기쁘게 읽어주세요.

제가 22년이란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처럼 올바른 성장을 위해 힘써주신 분은

단연 우리 목사님이 최고시라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이 있기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제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성장해온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 말씀은 중심으로 성장 해 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즐거운 추억이 되며 또 그리워질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주  
신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넓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해외 이곳저곳을 많이 여행 시켜 주셨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유초등부 꼬마들을 데리고 또 다녀오셨지요?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문 여행사에 맡기시지도 않으셨  
지요~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비행기 표도 끊으시고

또 직접 우리 손잡아 이끌고 다니시며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해외에 나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  
습니다.

솔직히 친구들 중에는 아직 비행기도 못 타본 아이들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는데  
성인이 돼서 보니 누군가를 책임지고 무리를 이끌고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저희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는 담대해져서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거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싱가포르에서의 일 기억하세요?  
의사소통 문제로 가이드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가이드가 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가이드보다 더 멋지게 우리 일행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지금껏 제가 보아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 단연 최고로 멋있어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 같은 어른으로 자라야겠다고 다  
짐을 했었습니다.

현재에 저는 목사님처럼 리더십이 뛰어나지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목사님을 닮아가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배움과 앞으로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언제나 든든하게 저희 곁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편지>

민이삭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장예은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에 하지 못하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번에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을 때 위로해 주셔서

엄청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들 질문 할 때마다 귀찮게 생각 안하시고

친절하게 끝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도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은 또 우리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선생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들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처럼 욕을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써 주시는데

가끔 한번 씩 속 썩여서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속 안 썩이고 말씀 잘 들어서 선생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머

어느 것 부터 잡지?

어느 마음씨 고운 농장 주인이 삼계탕을 해 먹으려고 닭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닭장에 세 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닭을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 가장 순해 보이는 녀석을 잡아 털을 뽑으려 하자 눈을 찌려보면서 닭이 말  
했습니다.

“어허~ 닭 처음 잡아봐? 목부터 따고 털을 뽑아야지?? 목부터!!”

깜짝 놀란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 솔에 물부터 끓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녀석이 다가오더니 한쪽 발을 솔에 놓으며 “이봐~ 물은 천천히 끓이  
고 찹쌀이랑 인삼이랑 다른 재료부터 손질해야지!”했습니다. 터프한 닭의 행동  
에 기가 죽은 주인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지막 녀석을 움켜잡아 깃털을 뽑  
으려는데 험상궂은 표정으로 변한 녀석이 외쳤습니다. “어이~형씨!! 다 뽑아도  
좋은데~

내 턱수염은 건들지 마아!!!”



닭에 대한 넌센스 몇가지 보고 같까요?

1. 우왕좌왕 미친 닭은 ? 헤까닥
2. 섹시한 닭은? 훌닥
3.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4. 빨리 죽는 닭은 ? 꼴까닥
5. 불쌍한 닭은? 즐딱
6. 가장 무서운 닭은? 암닭
7. 가장 멋진 닭은? 토닥토닥

<기도문>

정현미 집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버려져도 좋았고 짓밟혀 져도 좋았을  
역지 같은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나온 모든 날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감사와 찬양의 향기로 춤추게 합니다.  
항무지 같았던 내 심령은  
때때로 유혹하는 검은 그림자에 잠시 휩쓸리기도 하지만  
결국 성경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을  
감히 거부하지 못하는 천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새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느새 나는  
선함과 친절과 인내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느새 나는  
오직 주님 모습 그대로를 닮기 위하여 애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든 주님을 뵙니다.  
나 자신을 뒤 돌아 뵙니다.  
내 몸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나의 자식들을 뵙니다.

아~~~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나의 주님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떠한 각오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먼 곳 그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밖에서 헤메이며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위해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을 부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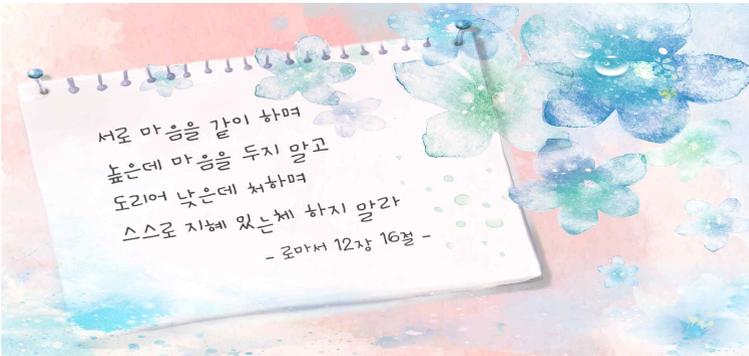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게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게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고

몸 된 교회를 더욱 살아나게 하기 위한 나의 작은 기도입니다.

아멘



##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봄이 오기가 싶더니 어느새 따뜻한 날이 지속되고 이제 제법 더워 반팔까지 꺼내 입는 횡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유초등부에서는 어떤 열정 있는 날들을 보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째 주는 지난주에 이어 부활절 울동 연습을 이어 갔는데요.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그런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배우며 즐거워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 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기도 하며 연습하였던지 어느덧 이마에 서는 땀방울이 흐르고 또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울동을 점점 더 정확히 익혀 가는 모습을 보며 교사들은 또 열심히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벚꽃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봄이면 친구들과 함께 나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폴라로이드의 특성상 핸드폰처럼 바로 사진 확인이 되지 않다보니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더 즐겁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는 두둥~~ 부활절 율동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회 하기 전 한 번 더 율동연습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최종 리어설도 하며 율동대회 잘 하자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 유초등부의 새로운 율동단인 하이 율동단이 처음으로 성전에서 율동을 선보인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이 은혜되는 축복의 날이었고 천국잔치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는 3월, 4월 생일자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종희 집사님의 찬조와 열심히 율동해서 탄 상금으로 생일 케익과 아이들이 좋아 하는 치킨, 피자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연신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후 생일자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글을 잘 쓰지 않다보니 어떻게 적어 내려가야 하나 고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자 한자 써 내려간 짧은 편지가 생일인 친구들에게 축하가 되었고 격려가 되어 기쁨을 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5월은 흔히들 말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 할 수 있게 함께 기도 해 주세요.



# 성경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 톱, 부츠, 커피잔, 포크, 화살표

\* 교만은 패망의 선봉 - essay.26 -



nooriart@naver.com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집이니라(잠언 16장 18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야고보서 4장 6절)



God is Love  
 당진순복음교회  
 달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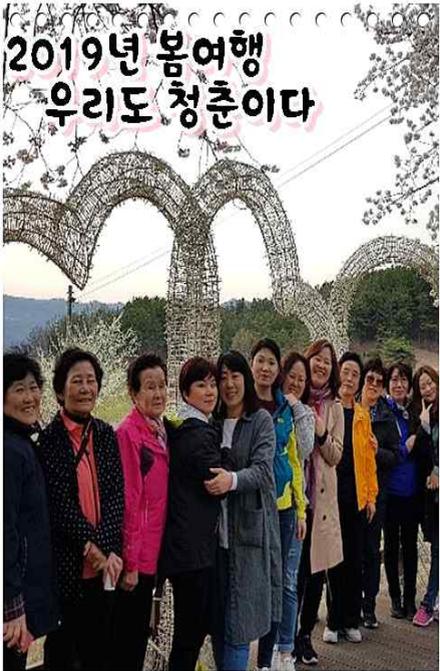
**모두모여라  
 우리교회로**

끝 없는 부흥  
 기도대로  
 될지어다

**친구들아  
 당진순복음  
 교회로  
 이레?**

**내 친구  
 예수님은** ♥







# 당진 순복음 교회 2019

## 부활절 율동대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라”





# 엄마저 보고 있쥬?





사랑둥이들 ~♡



밀알 답다  
멋져보려  
ㅎㅎ







##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

최근 뉴스에서는 연일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처음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치료약이 없어 사람이 죽고 병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지만 현재는 약이 개발되어 있다 보니 흔히 걸리는 독감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독감, A형 간염, 홍역 이 3가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중 홍역은 서울 경기권을 지나 대전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요즘 이 지역을 방문 후 고열과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빨리 병원에 내원해 진료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홍역의 경우 한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되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 B형과 C형의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반면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된다. 특히 개인위생 관리가 좋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발병되지만, 최근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20~30대에서도 발병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 감염되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A형간염을 가지고 있는 모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전염될 수도 있고, 수혈을 통해서 또는 남성 동성애자 등에서 비경구적인 감염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자와의 접촉과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되며,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오염된 식수원이나 급식 등으로 인한 경우이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치신 것을 볼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이 온 나라를 위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을 그저 지나갈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죄악 된 우리의 행함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인지 하늘에 지혜와 간구를 통해 깨달아 알기 원한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잘 견디기 위해서 개인 위생관리와 주변 위생 관리 등을 잘해 나가야 하겠다.

# 시사용어 Briefing

## 클래시페이크(Classy fake)

고급을 뜻하는 클래시(classy)와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가 결합된 용어로, 진짜를 압도할 만큼 매우 멋진 가짜 상품 혹은 그러한 상품을 소비하는 추세를 말한다. 가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소비자들은 사회, 문화, 기술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걸쳐 가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클래시페이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베이퍼웨어(Vaporware)

‘증기 제품’이란 뜻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상 제품을 뜻한다. 기업은 이것으로 경쟁사 제품 확산을 막고 자사 제품의 중장기 판매 기반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 되는 현상을 뜻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며 대체로 복지, 의료, 연금 확대에 의한 재정 부담과 청년층의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 바나듐(Vanadium)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ESS)로 각광받고 있는 배터리 소재로 기존 소재와 비교해 수명이 길고 화재 위험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진단을 통해 이 소재를 이용한 배터리 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

## 에스크로(Esc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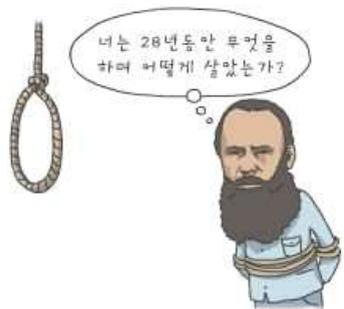
원래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자 상거래의 경우 ‘결제대금 예치’를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 최후에 5분

1849년, 러시아 '니콜라이' 1세 황제 당시, 개혁 운동에 가담하여 이상주의자 '페트라 세프스키 사건'에 연루 된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 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 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 보려는 순간,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 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황제의사로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강제노동형으로 감형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 난 그는 그 후, 사형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 문호,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ii, 1821~1881) 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 하루하루를...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져보았던 마지막 순간의 5분처럼 ...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좋은 글

잘 생긴 목사가님이 젊은 과부 집을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목사를님을 비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목사가님이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목사를님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보리겨 한 줍씩 나누어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리겨를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다시 그 보리겨를 주워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 가 버린 보리겨를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용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는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 올 뿐입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 이고,

일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툼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빛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메신저로 말씀과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란 것을...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



## 감사 릴레이

현덕규 권사

먼저는 죄 많은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려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게 하심도 감사드려요.  
주님의 선하심을 꼭 닮은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해요^^

다음주자 김순미 권사

## 미리암(Miriam)

### 뜻 : 높이운 자

아므람과 요벳의 딸로서 아론과 모세의 누이다([민28:59](#), [출7:7](#)).

어린 모세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출2:4,8](#)).

홍해를 건널 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출15:20](#)).

### ◇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

아론과 모세의 누이이며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이다. 그녀는 어린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을 때 멀리서 지켜보며 그 생명이 구출되기를 바랐다. “그 누이(미리암)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멀리 섰더니”(출2:4). 여기 나타난 미리암의 자세는 어린 동생의 비운을 생각하며 슬픈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절망적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지켜보는 선지자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선지자]를 [나브](대언자)라고도 하고 [호재](보는 자)라고도 한다.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래에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며 또한 백성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것을 다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다. 미리암은 갈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죄 없는 생명의 탄원같은 비명을 들으면서 그 비극의 현장에 전능자의 손이 나타날 것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멀리서 지켜보는 미리암의 동작은 역사가 바르게 흐르기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사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예언자적 시각이 있었기에 미리암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홍해서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출15:21). 그러나 미리암은 흔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과 겸손을 지키지 못하여 탈선하는 것처럼 그도 잠시 영적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사역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민12:1-2). 이로 인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은 받았으나 밖에서 일하는 소외된 여선지자가 되고 말았다.

## 성경 가로 세로 퍼즐 <5회>

8	10			6	8			
								4
7							3	
					1			
			2	2				
9								5
10						4	6	

### 가로 문제

### 세로 문제

1	사울왕의 아버지 (삼상 9:3)	1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격파한 사람 (삿 7:3-23)
2	바울의 동역자 (빌 4:3)	2	겐 족속의 조상 (대상 2:55)
3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로 죽은지 사흘만에 주님이 살려준 사람 (요 11:43)	3	암몬왕, 기르앗 야베를 취하다가 사울왕에게 패했다. (삼상 11:1-12)
4	다윗왕의 시대에 이 족속이 크고 유력하였다. (대상 26:30-32)	4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바벨론 왕 (사 39:1)
5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으로 찬양대원이다. (대상 6:42)	5	모압 왕으로 1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다. 에훤이 암살했다. (삿 3:13-25)
6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한 앓수르의 수도 (욘 1:2)	6	유다 자손으로 아람므엘의 아들 (대상 2:25)
7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간 산 (창 22:2)	7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 (창 19:37)
8	아브라함 당시 아드마 성읍의 왕. 요단 지평의 다섯 왕 중의 한 사람 (창 14:2-10)	8	모압땅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심 (신 32:49)
9	모세가 이드로의 양 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인 이곳에 이르렀다. (출 3:1)	9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다. (요 12:13)
10	다메섹 벤하닷의 장군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왕하 5:1)	10	야곱의 여섯째 아들, 라헬의 시녀 빌하의 둘째 아들 (창 30:8)

◎ 이달의 교회소식

- 1. 어린이축제 / 5월 5일 오후2:30~6:00
- 2. 야외예배 / 5월 12일 오전10:00~오후6:00 도문리동산
- 3. 수산나여선헌신예배 / 5월 19일 오후7:30
- 4. 효도여행 / 5월 23일 오전9시
- 5. 부부헌신예배 / 5월 26일 오후7:30
- 6. 제4회 족구대회 / 6월 1일 오후2:00~6:00

◎ 공지사항

- 1. 5월 생활실천표어 / 주님의 사랑을 나눠라
- 2. 5월 신앙서적 / 하나님의 집이 되라 ‘박호중’ 저
- 3. 교단총회 / 5월 20일~23일

◎ 이달의 교우소식

- 1. 이사 / 조경환(박혜주성도)성도, 나빈휘성도
- 2. 병원입원 / 김매월집사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 위원: 박기숙 집사
- 이종희 집사
- 정현미 집사
- 전수현 집사
- 조은희 권찰
-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